

도입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닌
기도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빈 들에 마른 풀같이 |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1. 빈 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2.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3.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4.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후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This is the promise of love:
There shall be seasons refreshing, Sent from the Savior above.
 2.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Precious reviving again;
Over the hills and the valleys, Sound of abundance of rain.
 3.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Send them upon us, O Lord:
Grant to us now a refreshing, Come, and now honor Thy Word.
 4.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O, that today they might fall,
Now as to God we're confessing, Now as on Jesus we call!
- Chorus)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Amen

본문 요한복음 4:13-15

-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John 4:13-15

13 Jesus answered,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14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15 The woman said 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so that I won't get thirsty and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설교

모든 사람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기를 원하고,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성공, 인기, 성취,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는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인은 평범한 물을 길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깨어진 관계와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갈망까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성공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마침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13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궁극적인 만족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공허함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14절).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어려움이나 실망, 또는 어떤 갈망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 갈증을 채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에 대해 물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수치심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까지 어디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생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참으로 만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루의 갈증을 해결할 물을 구하러 우물에 왔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잠시뿐인 세상의 것들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찾는 삶을 멈추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목마른 존재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목마른 존재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Every human being is thirsty—not merely physically, but spiritually. We long to be loved, accepted, valued, and fulfilled. We search for satisfaction through relationships, success, popularity, achievements, and pleasure. Yet, no matter how much we gain, we eventually find ourselves thirsty again. In John 4, Jesus meets a Samaritan woman at a well. She came seeking ordinary water, but Jesus knew she needed something far greater. Her life had been marked by broken relationships and unfulfilled desires. She had five husbands and was now living with a man who was not her husband. Jesus knew her past, her brokenness, and her deepest longings. Yet, instead of rejecting her, He offered her living water. Our spiritual thirst reveals the deepest desires of our hearts. We often look to created things to give us what only our Creator can provide. We believe that if we find the right relationship, achieve enough success, or receive enough approval, we will finally be satisfied. But Jesus says, “Everyone who drinks of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v. 13). Anything we depend on for ultimate satisfaction apart from God will eventually leave us empty. Jesus then makes an extraordinary promise: “Wh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 will give him will never be thirsty again” (v. 14). Jesus is not promising a life without difficulties, disappointments, or desires. He is promising something far greater—a restored relationship with God and eternal life that satisfies our deepest spiritual need. This is why Jesus confronted the woman about her relationships. He was not trying to shame her but to reveal where she had been searching for satisfaction. Before we can truly receive the living water, we must recognize the things we have been depending on instead of God. Jesus exposes our brokenness not to condemn us, but to lead us to His grace. The purpose of Jesus' calling is not simply to make our lives better, but to bring us to Himself, the only One who can satisfy our souls. The Samaritan woman came to the well looking for water that would last a day, but Jesus offered her living water that would last for eternity. We, too, are invited to stop searching for ultimate fulfillment in temporary things and find our true satisfaction in Christ. The question is not whether we are thirsty. We all are. The question is: Where are we going to satisfy our thirst?

1.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Like the Samaritan woman, what are the things in our daily lives that we tend to rely on instead of God to fill our emptiness?

2. 세상의 인정이나 성취, 인간관계가 일시적인 만족 뒤에 여전히 목마름을 남겼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Can you share an experience where human relationships, achievements, or recognition left you feeling thirsty again after a temporary satisfaction?

3.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나 회복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What peace or restoration have you experienced through intimate fellowship with Jesus, reflecting His promise tha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will never thirst"?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품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헛된 것을 뒤로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을 매일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praise You, Lord, for You know all our wounds and weaknesses yet call us into Your loving grace without condemnation. Throughout this coming week, help us leave behind the empty wells of this world and live victoriously, enjoying the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each day.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